

## 주요 내용

1. [가정의 달 리포트 1 : 한국인의 결혼과 출산 의식]  
부모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수록 자녀의 결혼 의향 높다!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1) 한국의 직장생활과 이른 은퇴에 대한 인식
  - 2) 챗GPT 영향 및 인식



목회데이터연구소

MINISTRY DATA INSTITUTE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 부모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수록 자녀의 결혼 의향 높다!

5월은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성년의 날(15일), 부부의 날(21일) 등 다른 달보다 가정에 관련된 날이 많아 '가정의 달'로 불린다. 하지만 가정의 시발점인 결혼과 출산에 관련한 지표는 해마다 낮아지거나 줄어 들고 있다.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의 수(합계출산율)는 2022년 0.78명이며\*, 1명이 채 안 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2020년 기준). 한국이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으로 보고 있으니 저출산 문제는 나라의 존폐가 달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의 젊은 층은 출산은 커녕 결혼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는 비율이 높다. 2030세대 여성의 경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10%에 불과했고,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에 대해서 29%만이 동의해 출산율 저하의 문제는 앞으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희망적인 결과라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한 부모 밑에서 자라거나 청소년기에 부모와 관계가 좋은 자녀일수록 결혼 의향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번 넘버즈 <190호>에서는 결혼과 출산/자녀와 관련 다양한 데이터들을 취합하였다. 2030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방해하는 요인과 고충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교회와 사회가 결혼과 출산에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

\*통계청(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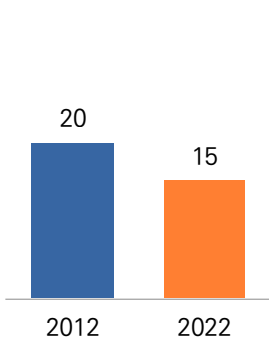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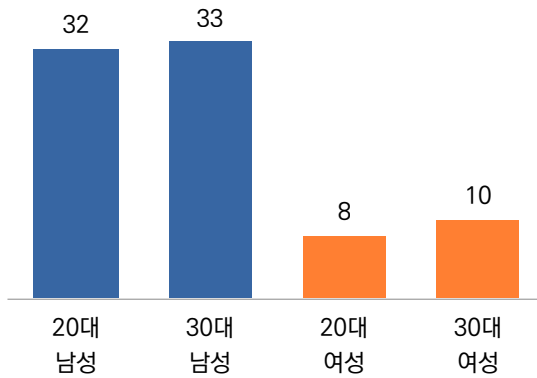
## [결혼에 대한 인식] '결혼 반드시 해야 한다', 2030여성 10%에도 못 미쳐!

- ▶ 우리 국민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2022년 기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응답은 15%로 10년 전 대비 5%p 감소했다.
- ▶ 성·연령별로 보면 2030남성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응답 비율이 30%를 넘었지만, 2030여성은 8~10%에 불과해 남성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결혼에 대한 견해\* ('반드시 해야 한다' 비율, %)



[그림] 성·연령별 결혼에 대한 견해\*\* ('반드시 해야 한다' 비율, 2022, %)



\*자료 출처 : 통계청, 2012년/2022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2.12.20./2022.11.16.

\*\*자료 출처 : 시사IN(808호), "우리 결혼 안 합니다" 생애 모델을 거부하는 사람들 [2023 연애·결혼 리포트], 2023.03.14.(만 18~49세 전국 성인 남녀 1,000명(미혼 579명, 결혼유경험자 421명), 웹조사, 2023.02.10.~0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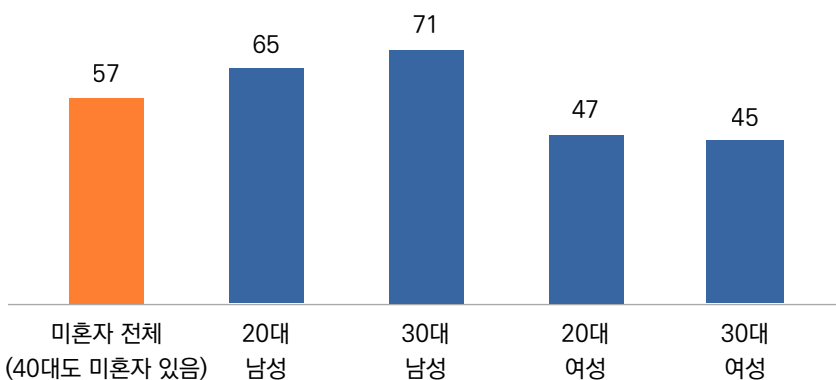
\*\*\*5점 척도임

# 02

## [미혼자의 결혼 인식] 2030 미혼 여성의 결혼 의향률, 50%에도 못 미쳐!

- ▶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을 살펴봤다. 미혼 응답자 중 결혼 의향이 있다는 사람은 57%,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43%였다.
- ▶ 성·연령별로 비교 시 격차를 보였는데 '결혼 의향 있음'이라고 응답한 20대, 30대 남성의 비율은 각각 65%, 71%인데 반해 같은 연령대 여성의 결혼 의향률은 이보다 훨씬 낮은 40%대에 그친 점이 주목된다.

[그림] 결혼 의향률 (미혼자, '의향 있음'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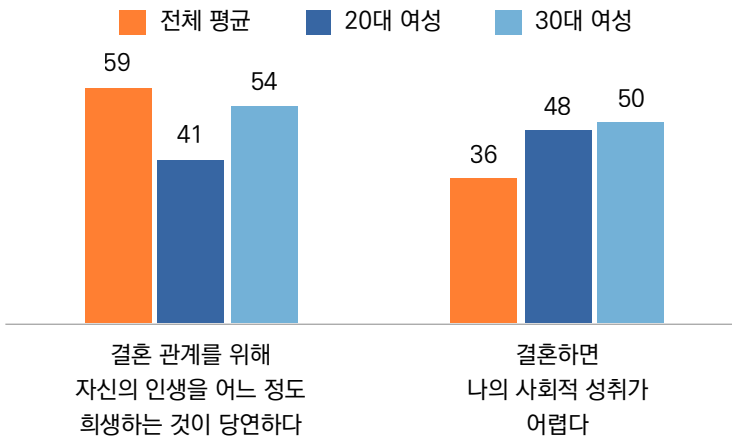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시사IN(808호), "우리 결혼 안 합니다" 생애 모델을 거부하는 사람들 [2023 연애·결혼 리포트], 2023.03.14.(만 18~49세 전국 성인 남녀 1,000명(미혼 579명, 결혼유경험자 421명), 웹조사, 2023.02.10.~02.14)

## ◎ 2030 여성 절반, “결혼하면 나의 사회적 성취가 어렵다”!

- ▶ 만 18~49세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을 ‘희생’과 ‘사회적 성취’의 관점을 통해 살펴봤다. 먼저 ‘결혼 관계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어느 정도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에 대한 동의율을 물었더니 전체 응답자의 59%는 ‘그렇다’고 응답했는데 20대 여성 동의율은 41%로 전체 평균 대비 18%p나 떨어졌다.
- ▶ ‘사회적 성취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 ‘결혼하면 나의 사회적 성취가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0대, 30대가 각각 48%, 50%의 동의율을 보여 2030 여성의 절반 정도는 사회적 성취에 있어 결혼을 방해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결혼에 따른 사회적 성취 또는 희생 관련 인식 (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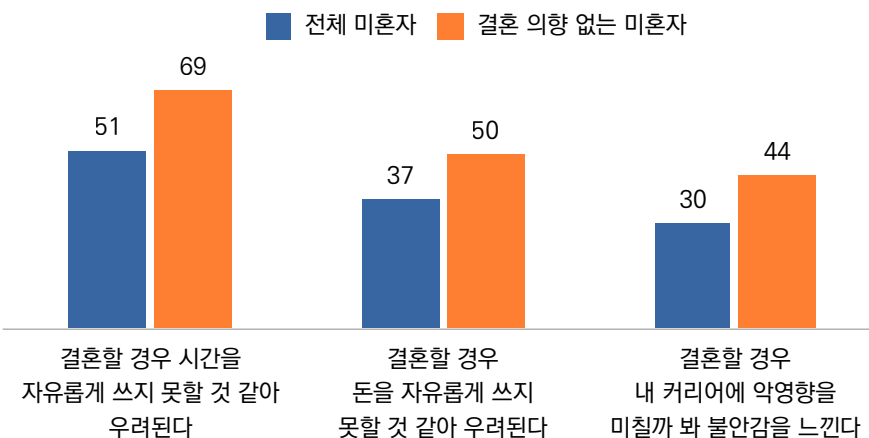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시사IN(808호), “우리 결혼 안 합니다” 생애 모델을 거부하는 사람들 [2023 연애·결혼 리포트], 2023.03.14.(만 18~49세 전국 성인 남녀 1,000명(미혼 579명, 결혼유경험자 421명), 웹조사, 2023.02.10.~02.14)

## ◎ 결혼 의향이 없는 미혼자 10명 중 7명, ‘결혼하면 시간을 자유롭게 못 쓸 것 같아 걱정’!

- ▶ 결혼에 대한 불안감을 확인하고자 ‘시간’, ‘돈’, ‘커리어’ 세 가지를 전체 미혼자 전체와 결혼 의향이 없는 미혼자를 나누어 살펴본 결과, ‘시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 ‘돈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 ‘커리어 악영향에 대한 불안감’ 모두 결혼 의향이 없는 미혼자가 전체 미혼자 보다 1.3~1.5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사적으로 향유하는 시간과 물질을 결혼의 유익보다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림] 결혼에 대한 불안감 (미혼자, %)



\*자료 출처 : 시사IN(808호), “우리 결혼 안 합니다” 생애 모델을 거부하는 사람들 [2023 연애·결혼 리포트], 2023.03.14.(만 18~49세 전국 성인 남녀 1,000명(미혼 579명, 결혼유경험자 421명), 웹조사, 2023.02.10.~0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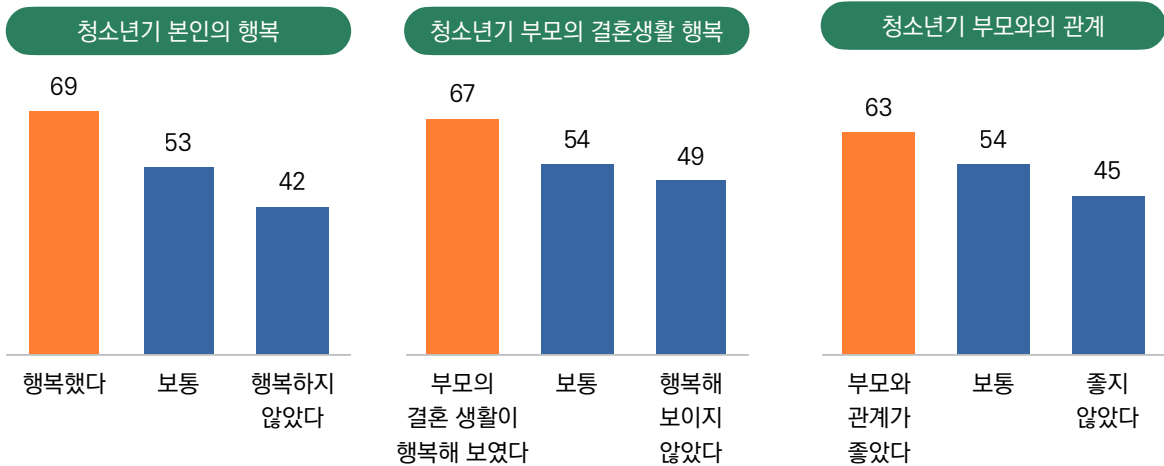
# 03

## [결혼에 영향을 주는 요소]

### 부모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수록 자녀 결혼 의향 높다!

- ▶ 청소년기 경험과 결혼 의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18~49세 미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소년기 시절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청소년기에 본인이 행복했다고 인식할수록, 청소년기에 부모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을수록 결혼 의향이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부부의 행복한 가정 생활이 결혼·출산율 등 전체적인 가정/사회 지표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림] 청소년기 경험에 따른 결혼 의향률 (미혼자, '의향 있음'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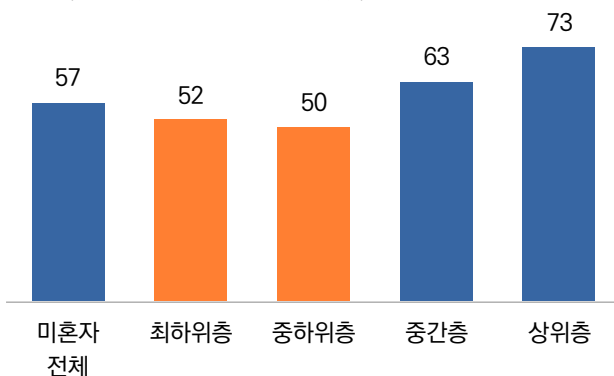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시사IN(808호), “우리 결혼 안 합니다” 생애 모델을 거부하는 사람들 [2023 연애·결혼 리포트], 2023.03.14.(만 18~49세 전국 성인 남녀 1,000명(미혼 579명, 결혼유경험자 421명), 웹조사, 2023.02.10.~02.14)

### ◎ 자신을 하위층이라고 느낄수록 결혼 의향 떨어져!

- ▶ 결혼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의식을 살펴봤다. 주관적 계층 인식이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혼 응답자 중 본인이 '상위층'이라 인식하는 경우 73%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하위 계층일수록 상대적으로 결혼에 대한 의향도 낮아져 '최하위층'(52%), '중하위층'(50%)의 경우 2명 중 1명 정도만이 결혼 의향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주관적 계층 인식에 따른 결혼 의향률 (미혼자, '의향 있음' 응답률, %)



\*자료 출처 : 시사IN(808호), “우리 결혼 안 합니다” 생애 모델을 거부하는 사람들 [2023 연애·결혼 리포트], 2023.03.14.(만 18~49세 전국 성인 남녀 1,000명(미혼 579명, 결혼유경험자 421명), 웹조사, 2023.02.10.~0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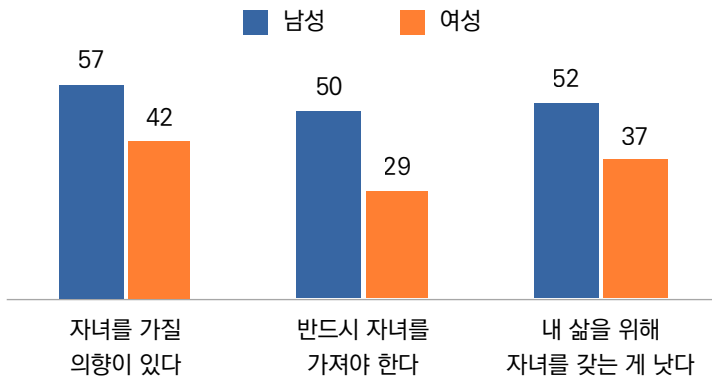
# 04

## [출산·자녀에 대한 인식]

### 2030여성 10명 중 7명, '반드시 자녀를 안 가져도 된다'!

- ▶ 2030세대를 대상으로 출산에 대한 의식을 살펴본 결과 2030세대 남녀의 인식 차가 극명했는데 '자녀를 가질 의향'에 있어서 남성은 57%, 여성은 42%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남성 50%, 여성 29%가 동의해 남성이 여성보다 자녀 출산에 대한 욕구가 훨씬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030세대 출산 의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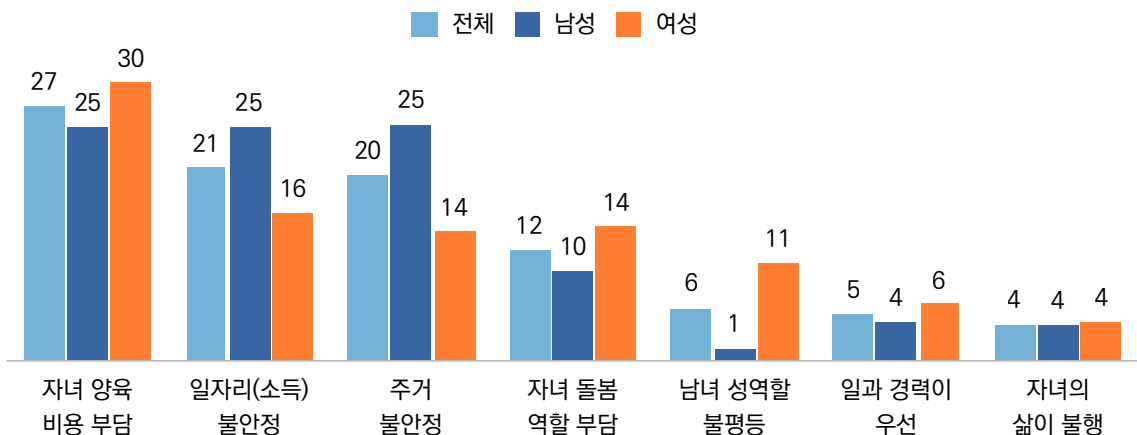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중앙일보, "애 안 낳는 게 부성애" 요즘은 남편들이 '딩크... 기사 참조, 2022.03.09. (결혼과 출산에 대한 2030세대 인식 조사, 전국 20~39세 남녀 800명, 온라인 조사, 2023.02.27.-02.2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5782#home>)

### ◎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출산율 감소 원인, '자녀 양육비용 부담' 1위!

- ▶ 2030세대가 생각하는 가장 큰 출산율 감소 원인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2030세대)의 27%가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1위로 꼽았고, 다음으로 '일자리(소득) 불안정' 21%, '주거 불안정' 20% 등의 순이었다.
- ▶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일자리(소득) 불안정', '주거 불안정' 등 경제적인 요인을 선택한 비율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성은 '자녀 돌봄 역할 부담', '남녀 성 역할 불평등' 등 남녀 역할적인 요인을 선택한 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2030세대가 생각하는 가장 큰 출산율 감소 원인 (전체 기준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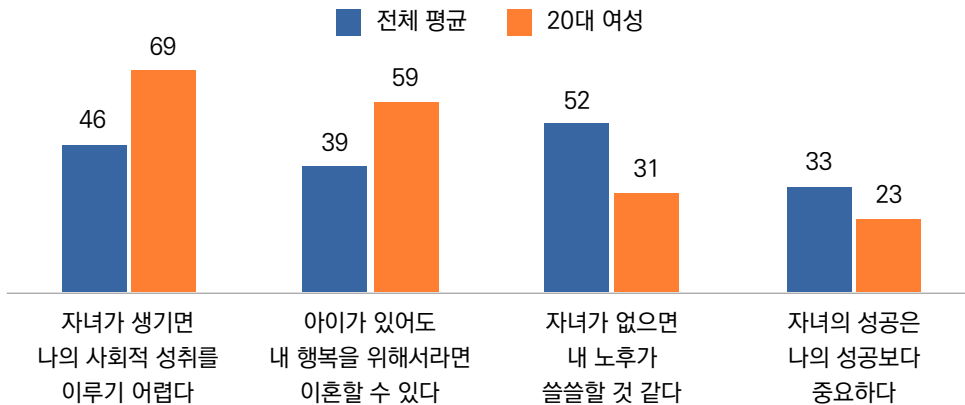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중앙일보, 애 없는 월천만원 부부, 애 낳는 월550만원 부부...이게 달랐다 기사 참조, 2022.03.08. (결혼과 출산에 대한 2030세대 인식 조사, 전국 20~39세 남녀 800명, 온라인 조사, 2023.02.27.-02.2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5485#home>)

## ◎ 한국 20대 여성 10명 중 7명, '자녀가 생기면 나의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 동의해

- ▶ 개인의 사회적 성취 또는 희생과 관련하여 자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확인했다. 먼저 '자녀가 생기면 나의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와 '아이가 있어도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혼할 수 있다'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18-49세)의 동의율보다 20대 여성의 동의율이 20%p 이상 높게 나타나, 젊은 여성층 중심으로 자녀보다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 ▶ 반면 '자녀의 성공이 나의 성공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은 전체 동의율이 33%로 낮았는데, 20대 여성의 동의율은 23%로 그보다 10%p 더 낮았다

[그림] 자녀-사회적 성취 또는 희생 관련 인식 (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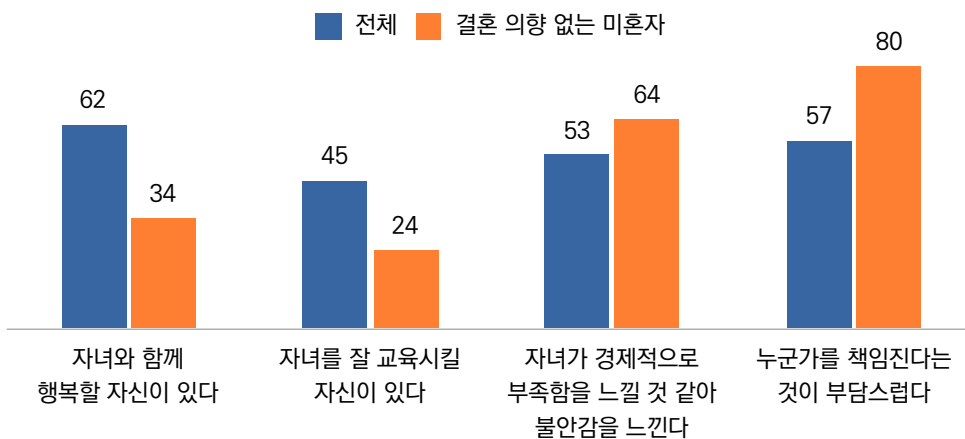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시사IN(808호), "우리 결혼 안 합니다" 생애 모델을 거부하는 사람들 [2023 연애 · 결혼 리포트], 2023.03.14.(만 18-49세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미혼 579명, 결혼유경험자 421명), 웹조사, 2023.02.10.~02.14)

## ◎ 결혼 의향 없는 미혼 집단일수록 자녀를 책임지는 삶에 대한 자신감 낮다!

- ▶ 자녀를 양육하고 책임지는 삶에 대한 자신감과 부담감 정도를 확인하였다. '자녀와 함께 행복할 자신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18-49세)의 62%가 '그렇다'고 응답한 데 반해, 결혼 의향이 없는 미혼 집단의 경우 이보다 절반 가까이 낮은 34%로 나타났다.
- ▶ 자녀가 경제적으로 부족할 것에 대한 불안감, 누군가를 책임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결혼 의향 없는 미혼 집단(각각 64%, 80%)이 전체 응답자보다 높았다. 자신감은 결여되어 있고, 불안감과 부담감은 높으니 결혼하는 것을 회피하게 되는 셈이다.

[그림] 자녀 양육 책임지는 삶에 대한 자신감/부담감 (%)



\*자료 출처 : 시사IN(808호), "우리 결혼 안 합니다" 생애 모델을 거부하는 사람들 [2023 연애 · 결혼 리포트], 2023.03.14.(만 18-49세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미혼 579명, 결혼유경험자 421명), 웹조사, 2023.02.10.~0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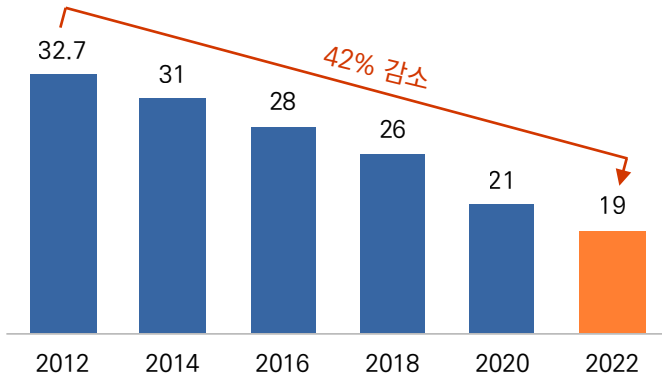
# 05

## [혼인/출산 통계지표]

### 2022년 우리나라 혼인, 10년 동안 42% 감소!

- ▶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2022년 혼인·이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2012년 32.7만 건에서 2022년 19.1만 건으로 10년 사이 무려 42%가 줄었고, 매년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림] 혼인 건수 추이 (만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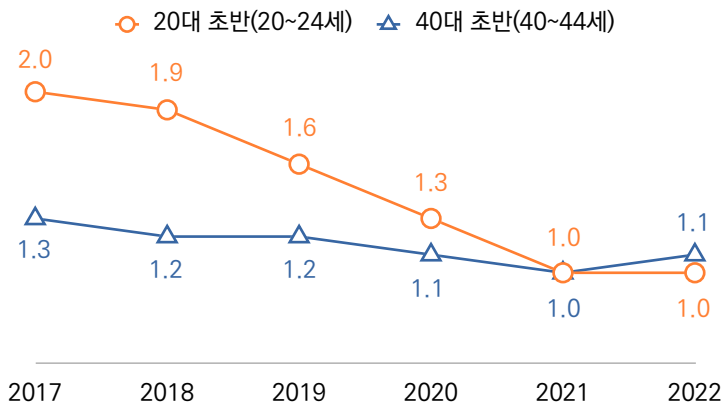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2년 혼인·이혼 통계, 2023.03.15

### ◎ ‘40대 초반’ vs ‘20대 초반’ 혼인 건수 2021년부터 역전!

- ▶ 지난해 40대 초반(40~44세) 여성의 혼인 건수는 1.1만 건으로 20대 초반(20~24세) 여성 혼인 건수인 1.0만 건 대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부터 2년 연속으로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가 20대 초반보다 높았고, 그 격차도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결혼이 늦어지는 ‘만혼’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여성 혼인 건수 추이 (20대 초반 vs 40대 초반, 만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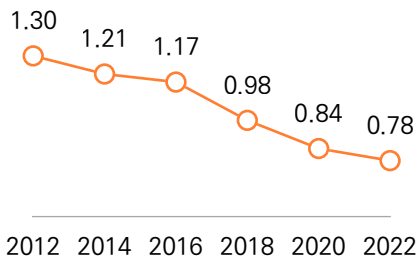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혼인부부의 연령별 혼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2&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2&conn_path=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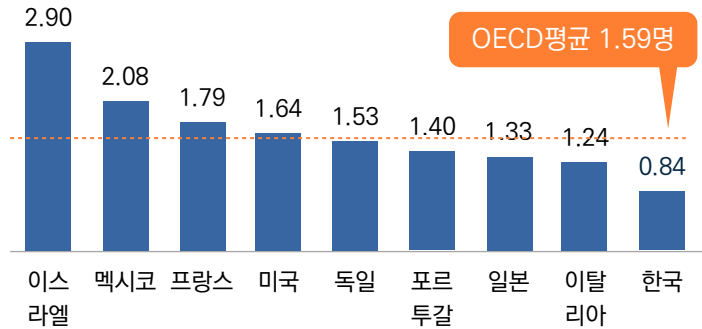
## ◎ 한국의 출산율, 0.78명으로 OECD 평균 절반 수준!

- ▶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이미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1명 미만에 접어들었는데, 2022년 0.78명까지 떨어졌다.
- ▶ 2020년 기준 OECD 38개국 평균 출산율은 1.59명인데 한국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꼴찌를 기록하였다.
- ▶ 출산율이 1명 아래인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한데, 세계 최장수국으로 알려진 일본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1.33명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그림] 합계출산율 추이 (명)



[그림]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2020년 38개국 기준,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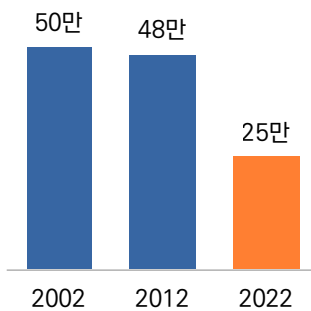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2023.0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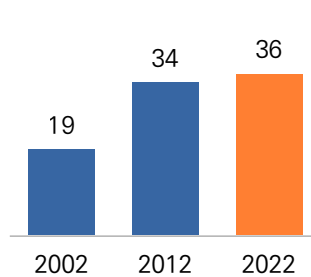
## ◎ 한국 출생아 수, 20년 전 대비 절반으로 뚝!

- ▶ 한국의 출생아 수는 2002년 50만 명에서 2022년 25만 명인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은 2022년 36%로 20년 전 대비 2배가량 늘었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짐에 따라 첫째아 출산 연령 또한 평균 33세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인 29세보다 4세 정도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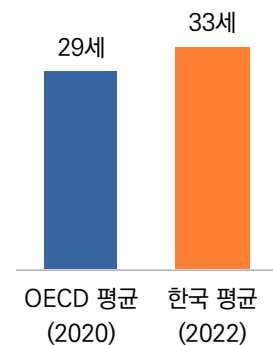
[그림] 출생아 수 추이 (명)



[그림]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 추이 (%)



[그림] 첫째아 출산 연령



\*자료 출처 : 통계청,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2023.02.22.

목회데이터연구소는 결혼과 출산에 큰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다.<sup>1)</sup> 결혼과 출산이 우리 공동체의 지속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영국의 한 학자가 '한국인의 멸종'을 거론할 정도로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sup>2)</sup> 인구 감소의 문제는 교회라고 해서 피해 갈 수 없다. 교인 수가 줄어들고 교인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은 전도 부재 요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구 감소 요인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저출산과 연결되어 있고, 저출산 이전에 '결혼 기피 현상'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넘버즈」 155호에서 분석한 혼인 건수 감소 이유에서 '내 집 마련 등 결혼 비용 증가'(55%)가 가장 큰 이유였다. 이번 「넘버즈」 190호에서도 사회경제적 주관적 인식이 최하위층인 미혼자들의 결혼 의향률이 52%였는데, 이는 상위층의 73%보다 21%p 더 낮은 수치이다. 결혼하면 살 집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일인데, 2016~2021년 서울 부동산 가격은 약 50% 상승했지만,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약 10%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근로소득자가 돈을 모아서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 앞에서 젊은이들, 특히 저소득 가정 젊은이들은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도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컸다. 이번 호의 데이터를 보면 2030세대의 출산율 감소의 제1원인을 '자녀 양육 비용 부담'(27%)이라고 꼽았다. 2위는 '일자리(소득) 불안정'(21%), 3위는 '주거 불안정'(20%)으로 출산율 감소의 1위~3위 요인 모두 경제적 요인이었다. 보육 및 교육 비용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자녀를 여러 명 낳는 것을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초중고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2022년에 약 26조로, 전년도에 비해 2조 5,000억 원(10.8%)이 증가하였다.<sup>3)</sup> 학생 수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에서 차지하는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는 경제적 요인 외에 다른 요인을 주목하고자 한다. 미혼자의 결혼 의향에 청소년기의 가정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청소년기에 '행복

했다'는 응답자의 결혼 의향률이 69%인데 비해 '행복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42%로 무려 27%p나 더 낮았다. 청소년기 부모의 결혼 생활이 '행복해 보였다'는 응답자는 67%,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49%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기 부모와의 관계가 '좋았다'는 응답자의 결혼 의향률은 63%, '좋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45%였다. 종합하면 가족 간의 관계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은 결혼 의향이 더 높았다.

아이는 태어나 자라면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데 사회화의 첫 번째 통로가 가정이다. 부모를 보면서 남자와 여자를 알게 되고 배우자의 역할과 부모의 역할을 배우게 된다. 여자는 아버지 닮은 남자와, 남자는 어머니 닮은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는 것도 사회화 과정에서 새겨진 배우자 모델이 부모이기 때문이다. 가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사회화도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으면 자신도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꿈꾸는 것이고, 가족 간의 불화가 심한 가정에서 자랐으면 가정을 갖는 것을 꺼리게 된다.

결혼을 기피하고 자녀를 낳지 않는 데에는 분명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다. 하지만 가정에 대한 인식이 무시 못 할 영향을 미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정이 행복한 곳' 그래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가치관 형성이 필요하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교회가 화목한 가정을 강조해야 한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기초하여 남녀의 가정 역할이 동등한 가정, 아내와 어머니가 자신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 부모가 자녀의 존엄함을 존중하는 가정이 될 때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이다.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동시에 가정과 교회, 사회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 넘버즈 25호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136호 '출산 관련 종교인 인식', 155호 '한국인의 결혼관 그리고 자녀관' 등

2) 폴 몰런드, 영국 런던대학교, 인구학 권위자, 저서 [인구의 힘]

3) 한국대학신문,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 총액 역대 최고인 26조 원..전년 대비 10.8% 증가'(2023. 3. 7)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42995>)

1.[한국의 직장생활과 이른 은퇴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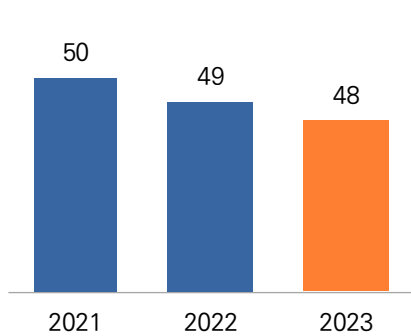
2.[챗GPT 영향 및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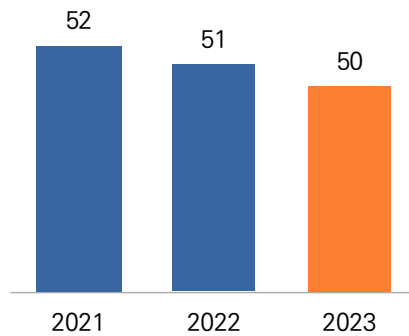
## 우리나라 직장인 2명 중 1명만 직장생활 만족!

- ▶ 우리나라 직장인들에게 현재 직장 and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 물은 결과 직장·업무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모두 2명 중 1명 정도 수준(직장 만족 48%, 업무 만족 50%)이었다.
- ▶ 현재 직장 만족도는 2021년 50%에서 2023년 48%로, 업무 만족도는 2021년 52%에서 2023년 50%로 둘 다 소폭씩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현 직장 만족도\*\* (매우+약간 만족, %)



[그림] 현 업무 만족도\*\* (매우+약간 만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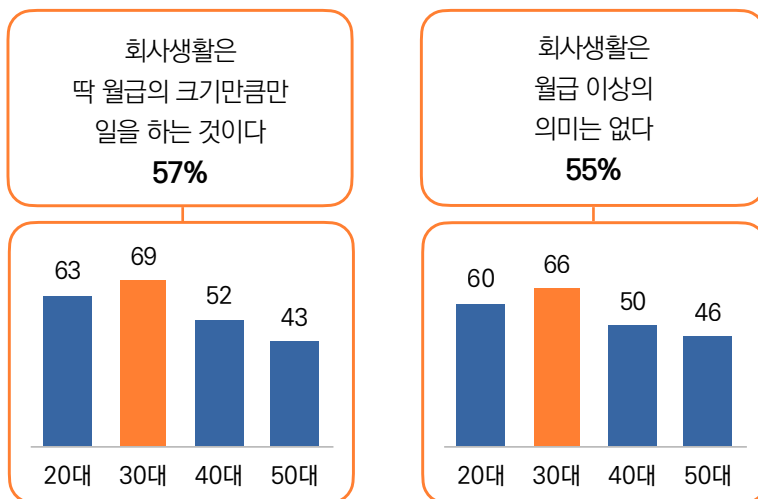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3 직장생활 평가 및 F.I.R.E족 관련 인식 조사, 2023.04.21.(만 19~59세 급여 소득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2.24.~02.27)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ldx=2624&code=0402&trendType=CKOREA>)

\*\*5점 척도임

### ◎ 30대 직장인 10명 중 7명, ‘회사생활은 딱 월급만큼만 일한다!’

- ▶ 직장생활에 대한 견해를 월급을 대비(기준)점으로 두고 물었다. ‘회사생활은 딱 월급의 크기만큼만 일하는 것이다’란 의견에 절반 이상인 57%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젊은 층 특히 ‘30대’의 동의율은 6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 ‘회사생활은 월급 이상의 의미는 없다’(55% 동의)에도 30대의 경우 무려 3명 중 2명(66%)이 회사생활에서 돈 이상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해 주목된다.

[그림] 현재 직장생활에 대한 전반적 생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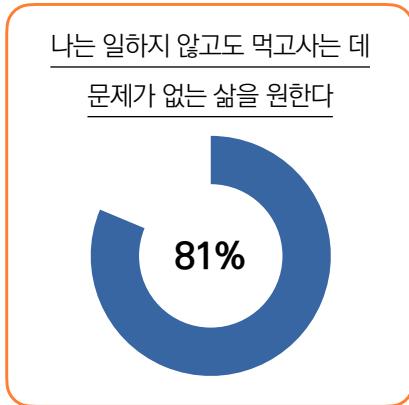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3 직장생활 평가 및 F.I.R.E족 관련 인식 조사, 2023.04.21.(만 19~59세 급여 소득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2.24.~02.27)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ldx=2624&code=0402&trendType=CKOREA>)

## ◎ 우리나라 직장인이 원하는 삶, '일하지 않고도 먹고사는 데 문제없는 삶' 81%!

- ▶ 우리나라 직장인의 꿈이 이 질문에 담겼는데, '나는 일하지 않고도 먹고사는 데 문제가 없는 삶을 원한다'에 전체 직장인 5명 중 4명가량(81%)이 응답했다. 경제적 자유에 대한 직장인들의 높은 욕구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림]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에 대한 인식 (직장인 대상, '그렇다'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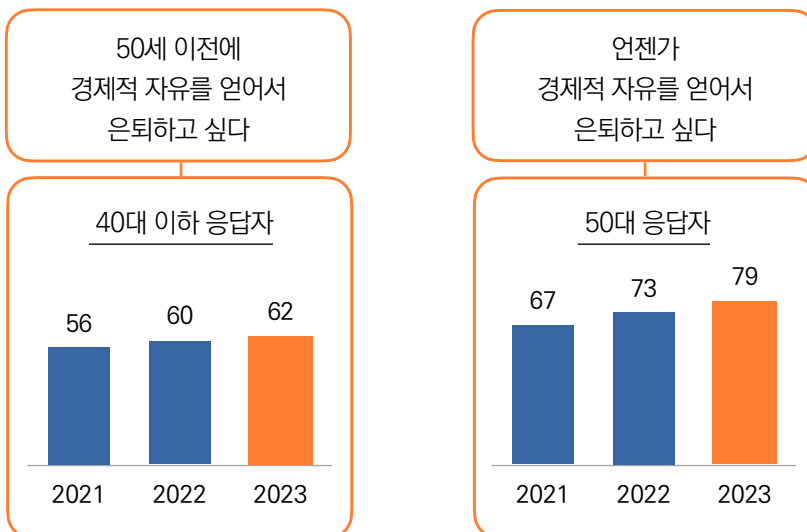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3 직장생활 평가 및 F.I.R.E족 관련 인식 조사, 2023.04.21.(만 19~59세 급여 소득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2.24.~02.27)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ldx=2624&code=0402&trendType=CKOREA>)

## ◎ 2040세대 직장인 3명 중 2명 가까이, F.I.R.E족 꿈꾼다!

- ▶ 50대 이전에 경제적 조건을 갖춰 은퇴하는 사람을 F.I.R.E(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족이라고 일컫는데, 20~40대에게 '50세 이전에 경제적 자유를 얻어 은퇴하고 싶은지' 즉, F.I.R.E족을 꿈꾸는지를 묻은 결과 20~40대 3명 중 2명 가까이(62%)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이러한 인식은 해마다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 이미 F.I.R.E족의 기준을 넘었지만 50대의 경우에도 '언젠가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은퇴하고 싶다'는 응답률이 79%로 매우 높았고, 은퇴에 대한 의향도 40대 이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은퇴 의향에 대한 인식 (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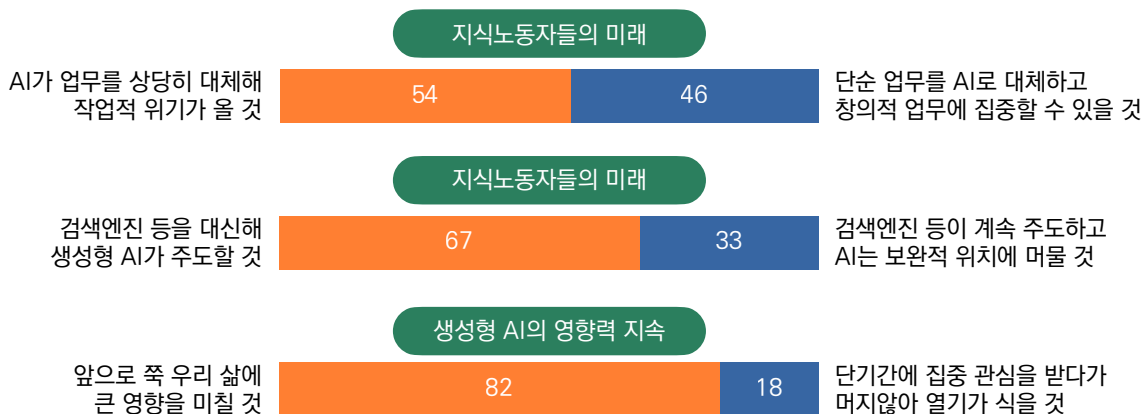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3 직장생활 평가 및 F.I.R.E족 관련 인식 조사, 2023.04.21.(만 19~59세 급여 소득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2.24.~02.27)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ldx=2624&code=0402&trendType=CKOREA>)



## 챗GPT, 향후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큰 영향 미칠 것 82%

- ▶ 챗GPT가 앞으로 우리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각각 서로 반대되는 진술문 3가지를 제시하고 물었더니 먼저 '지식노동자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AI가 업무를 대체해 직업적 위기가 올 것'이란 의견이 54%로 '단순 업무를 AI로 대체하고 창의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란 응답(46%) 대비 약간 높았다.
- ▶ 정보검색 영역의 미래에 대해선 '검색엔진 등을 대신해 생성형 AI가 주도할 것'(67%)이란 응답이 'AI가 보완적 위치에 머물 것'(33%)과 비교해 2배 높았으며, '생성형 AI의 영향력 지속' 부문에서는 '생성형 AI가 앞으로 꼭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82%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다가 그 열기가 식을 것이다'라는 응답(18%) 대비 크게 높아, AI가 미래 사회 전반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림] 챗GPT(생성형 AI)의 미래 사회 영향력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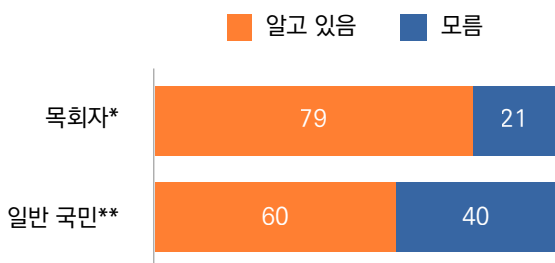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챗GPT 이용 경험 및 인식' 결과 발표 보도자료 참조, 2023.04.12. (20~50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3.29.~04.02)

### ◎ 일반국민(60%)보다 목회자(79%)가 더 챗GPT에 대해 잘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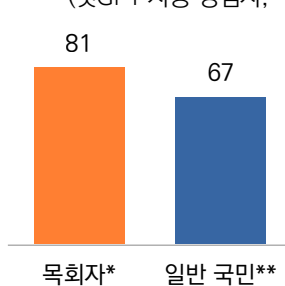
- ▶ 지난 넘버즈 186호 [챗GPT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과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표한 일반국민의 '챗GPT 이용 경험 및 인식' 자료와 간단히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챗GPT 인지도 및 결과에 대한 신뢰도' 모두 목회자가 일반국민보다는 약간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챗GPT 인지 여부 (%)



[그림] 챗GPT 결과 신뢰도

(챗GPT 사용 경험자, '신뢰함' 응답률, %)



\*자료 출처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자의 챗GPT에 대한 인식과 사용 실태 조사 결과, 2023.04.03 (전국 개신교 담임목사/부목사 650명, 모바일 조사, 2023.03.24~03.25)

\*\*자료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챗GPT 이용 경험 및 인식' 결과 발표 보도자료 참조, 2023.04.12. (20~50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3.29.~04.02)

\*\*\*4점 척도임 (매우+약간, 전혀+별로)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40호 \(2023년 4월 4주\)](#)

- 정당 지지도, 금/부정 평가 이유, 정부 출범 1년 분야별 정책 평가 등

[전국지표조사\(주요 4개 조사회사\) 리포트 제95호 \(2023년 4월 4주\)](#)

- 국정운영 평가, 국정운영 금/부정 평가 이유, 정당지지도, 정당호감도 등

◎ 사회 일반

["아내한테 맞는 남편도 피해자인데"...2명중 1명만 가정폭력 인식](#)

연합뉴스\_2023.04.23.

[국민 10명 중 6명 "고소득층 세금 적게 부담한다"](#)

매일경제\_2023.04.28.

["밥 한번 먹자"고 말한 친구한테 연락해야하나...혼밥 사연 들어보니](#)

매일경제\_2023.04.27.

[화를 부르는 호칭 '아줌마'... 조심하라, 60대도 발끈한다](#)

조선일보\_2023.04.29.

[국민 10명 중 7명 "인공지능 활용 법률서비스 긍정적"](#)

국민일보\_2023.04.25.

[2월 출생아 첫 1만명대... "2041년 인구 5000만명 붕괴"](#)

중앙일보\_2023.04.27.

[양육비 많이 드는 나라, 중국 2위...1위는 어디?](#)

동아일보\_2023.05.01.

**[인구가 미래대! : 결혼하는 사회 되려면, (국민일보)]**

[1. "결혼도 못하는데 결혼식은 무슨" 예식장 출폐업 공포](#) \_2023.03.01.

[2. 인구 구조 변화가 꺾은 취업자 수 증가세... 잠재성장을 낮춘다](#) \_2023.03.15.

[3. 질 좋은 청년 일자리 확보가 저출산 극복 열쇠](#) \_2023.03.30.

[4. 육아 걱정 덜어주는 대기업들, 출산부터 돌봄까지 지원](#) \_2023.04.05.

◎ 청년 / 청소년

[우울감 느끼는 가족돌봄청년, 일반청년보다 7배 많다](#)

연합뉴스\_2023.04.26.

["가정폭력 겪은 학교밖 청소년, 공격성 높아져 또래폭력 연결"](#)

연합뉴스\_2023.04.23.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기업 / 경제

['근로자의 날' 누가 쉬고 못 쉬나...법이 갈라놓은 노동자들](#)

JTBC뉴스\_2023.04.30.

[노동절 휴무도 임금명세서도...직장 규모로 나뉜 'K-노동신분제'](#)

경향신문\_2023.05.01.

[코로나 빛 상환유예의 착시...가계대출 연체율 폭풍전야](#)

중앙일보\_2023.04.26.

["구직자·직장인 58%, 취업·이직시 재택근무 여부 고려"](#)

연합뉴스\_2023.04.25.

[술 못 하면 비즈니스에 불리? 한국·일본·대만 남성 조사해봤더니...](#)

헬스조선\_2023.04.30.

[돌봄·청소 등 필수노동자 486만명...여성화·고령화·저임금 뚜렷](#)

한겨레\_2023.05.02.

◎ 국제

[15억 '할마·할빠' 경제 급성장... 미국 조부모, 연 340만원 쓴다](#)

조선일보\_2023.04.29.

◎ 건강

[당뇨병 환자 '이 음료' 즐기면 사망률 20% 올라간다](#)

조서일보\_2023.04.26.

["코로나 전보다 음주 늘어난 노인, 우울 위험도 2배 높아"](#)

동아일보\_2023.04.28.

[직장서 '이것' 경험...고혈압 위험 54% 쑥 ↑](#)

동아일보\_2023.04.27.

◎ 기독교 / 종교

[신앙인이 행복감 높다는데... '찐 기독교인'은 줄었다](#)

더미션(국민일보)\_2023.04.27.

["얼굴 보는 교회가 좋아"...대면교회 선호도 높은 이유](#)

더미션(국민일보)\_2023.04.30.

[美 Z세대, 팬데믹후 종교 관심 높아져... "신의 존재 믿는다" 1년새 25→33%로](#)

동아일보\_2023.04.25.



###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대구칠곡교회, 대덕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음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식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마뜨, 메가리서치,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웨슬리퀘스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 후원 명단 안내 |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김찬술, 한미경

##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